

국민을 위한 상생 금융 가속화

2024. 4.

들어가며

“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,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은행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,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”

-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 대통령 마무리 발언 (2023.1.30.) -

“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.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,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습니다.”

- 제4회 민생토론회(‘상생의 금융, 기회의 사다리 확대’) 대통령 모두 발언 (2024.1.17.) -

“세계 어느 정부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를 방치하지는 않습니다. 우리 정부가 독과점의 울타리에서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해 온 금융권의 지대 추구를 개선한 것도 바로 이런 시스템의 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에 이르고,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습니다.”

-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통령 특별강연(2024.3.30.) -

“앞으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, 또 금융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”

-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(2차) 대통령 모두발언(2024.4.4.) -

**1.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은행의 카르텔
혁파를 강조하고, 많은 이익을 얻은 은행이
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.
그 이후 개선된 것은 무엇이었나?**

□ 은행의 경우, 그간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혁신과 경쟁이 부족하고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음

○ 그래서, 이를 개선하기 위해 '23.12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을 위해 「민생금융 지원 방안」을 마련

※ 민생금융지원방안 : 공통프로그램 + 자율프로그램

- 공통프로그램 : 소상공인 대상 이자 지원

- 자율프로그램 : 이자 지원 外 학자금·주거 및 생활안정 자금, 전기료·통신비·임대료 등 지원

☞ 상세 내용은 2p

2. 그래서,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?

-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2.3조 원은 소상공인
이자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우선, 「민생금융 지원방안」의 공통프로그램에 따라
은행 이자 지원은 1.5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188만 명
에게 1인당 평균 80만 원 이자 환급(캐시백)으로 진행
 - ※ '24.2.5일 개시, '24.3월 말 기준 약 1.36조 원 환급 완료
 - 이외에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 등에 0.8조 원 지원
 -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의 이자 환급 총 0.3조 원
(1인당 평균 75만 원 혜택)
 - ※ 중소기업 :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·수·신협, 산림조합,
새마을금고), 여전사(카드사, 캐피탈)
 -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환대출
시행 총 0.5조 원
- 그 밖에 「민생금융 지원방안」의 자율프로그램에 따라
은행권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별도 0.6조 원도 청년과
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

- 청년·금융 취약계층 등 125만 명에게 학자금, 주거 및 생활 안정 자금, 금융비용 등 1,680억 원 지원
- 소상공인과 소기업 42만 명(社)을 대상으로 전기료·통신비·임대료·난방비 등 1,919억 원 경비 지원
-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2,372억 원 출연

□ **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은행권이 20조 원을 지원**

- '24.4.1일부터 지원 개시되며 기업들이 국내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버팀목으로 작동

3. 향후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?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?

- ❶ 앞으로도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
- ❷ 낮은 금리 갈아타기 확대,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,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을 통해 은행 간의 경쟁을 계속 촉진해 나갈 계획임
- ❸ 특히, 은행이 이익을 우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, 내부통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임

1 상생 금융지원**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('24中)**

- (공동프로그램)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.5조원 수준의 이자 환급(1인당 최대 300만원, 평균 80만원)

* '23년도분 이자 환급액 약 1.36조 원 지급 완료

- (자율프로그램) 서민금융진흥원·신용보증기금 출연(2,372억 원), 소상공인 경비 지원(1,919억 원), 청년·금융 취약계층 지원(1,680억 원) 등을 위해 약 0.6조 원 투입

②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6.2조 원('23)**③ 중금리 신용대출 지원 9.3조 원('23)****④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 26조 원('22)**

*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, 관계형금융, 안심고정금리대출 공급 등

⑤ 연체(우려)차주 프리워크아웃(만기 연장, 대출금리 감면 등 32.7만건('22中))**⑥ 증가·소상공인 패스트트랙, 새출발기금 등 채무부담 경감 5,722억원('22中)****⑦ 은행별 자체 상생 금융프로그램 운영 9,076억 원('23.3~'24.2)****⑧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(청년도약계좌, 51만명 가입('23말))****2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****○ 중소·중견기업 지원 총 20조 원**

- 중견(11.5조 원) : 저리대출(1%p 금리우대), 펀드조성, 보증부대출
- 중소(8.3조 원) : 혁신기술기업 대출, 매출 감소 기업 금리 인하 등